



비 오는 날 개들이 벤치에 앉은 후 생긴 일



팀장 할머니로부터 대리사와 받던 당시의 견주와 개들의 모습

비가 내리던 작년 5월 말, 초여름 더위의 한낮에 개 두 마리가 공원 내 정자 벤치에 앉았다. 이를 본 70대 할머니가 견주에게 “개들이 빗물에 젖었으니 가실 때 벤치를 좀 닦아주시라”고 당부했다. 할머니는 노인일자리지원사업에 참여해 아침부터 낮까지 동네 공원 일대 환경정화 활동을 펼치는 터였다.

50대 여성 견주는 할머니의 한마디 당부에 매섭게 반응했다. 견주는 “세상에 그런 법이 있습니까?”라고 따졌다. 할머니와 견주는 불과 몇 초 전 같은 공원 내 여성 화장실을 쓰고 나온 사이였으며, 대화는 생전 처음인 관계였다. 할머니도 견주에게 “우리나라 법입니다”라고 대답

했다. 그 말이 견주의 심기를 거스르게 했다. 견주는 할머니에게 양갈지게 소리치면서 “우리나라 무슨 법이냐”고 소리 질렀다. 일반적이지 않다고 판단한 할머니는 등을 돌려 쫓기듯이 동료들에게로 갔고, 견주는 할머니 등 뒤로 한참 소리를 지르고도 모자랐는지 농림축산식품부·경찰서·시청·동주민센터에 각각 차례로 전화를 걸어 “개가 벤치에 앉았다가 자리를 뜰 때 닦아야 하는 법이 있는지”를 연거푸 문의했다고 한다.

그날 오후 견주의 남편이 시청 각 관련부서에 전화를 걸어 ‘노인이 여성 견주를 비하하고 갑질했으며 욕설과 폭언을 퍼부었으니 교육을 똑바로 시켜달라’는

취지로 요구했다.

시 담당자는 이러한 견주 남편의 민원을 여과 없이 그대로 노인일자리지원 사업 위탁기관에 알렸고, 위탁기관은 할머니에게 ‘견주가 사과를 원한다’고 전달했다. 할머니는 ‘본의 아니게 물의를 끼쳐 죄송하다’면서도 ‘잘못한 일이 없으니 사과를 할 수 없고 내가 관두겠다’고 했다. 그러자 자구책으로 할머니를 인솔하는 팀장 할머니가 대신 며칠 뒤 해당 장소로 나가 견주에게 사과를 했다.

사과 장소에서 견주는 당시 벤치에 앉았던 개 두 마리를 데리고 나왔고, 그날 개들은 팀장 할머니와 관계자들을 향해 크게 짖어댔다고 한다.

며칠 뒤 이 상황을 사진과 함께 제보 받았다. 피해 할머니는 ‘홀몸어르신’이지만 평소 무척 교양 있으시며 바르고 남에게 아쉬운 말 한 마디 안 하는 존경스러운 분이라고 했다. 그 분이 무척 자책하고 있으며, 동료 할머니들과 할아버지들도 함께 안타까워 한다는 전언이었다.

너무 정교하게 보도될 경우 취재원이 드러날 위험이 크다. 취재원을 보호하기 위해 ‘지나가는 시민’에 따르면, 이라는 전제를 붙였고 지엽적인 자세한 사항을 일부 틀리게 한 뒤 보도했다.

그렇게 보도된 <[단독]개들 앞 불려가 고개숙인 80대 할머니...입마개 요청이 죄?>라는 제하의 기사는 그날 하루 한 포털에 1만여개 이상의 댓글이 달릴 정도로 반향이 컸다. 그 반향은 꼬이고 꼬여 나의 기자활동에도 타격을 주게 된다.

취재원 보호 등을 위해 일부 틀리게 했던 지엽적 팩트를 빌미로, 해당 시청은 ‘비오는 날 견주와 만났던 할머니는 향후 견주를 만난 사실이 없으며 견주에게 사과하지도 않았다’는 요지의 입장문을 냈다.

시는 ‘팀장 할머니가 대리사과했다’는 팩트는 입장문에서 뺐다. 다만 ‘팀장 할머니가 견주를 만나 대화를 나눴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 입장문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나의 기사는 마치 없던

상황이 발생했던 공원 벤치에 앉아 휴식을 취하는 노인일자리사업 참여 노인들



시청 공무원노조가 시청사 복도에 2달여 간 게시판 뉴스1 규탄 현수막

일을 있었던 것처럼 꾸며낸 기사다. 하지만 눈 밝은 독자들은 이러한 회피형 시의 입장문에 더 격분해 ‘어째서 대리사와 사실을 언급하지 않느냐’며 시청 자유게시판을 찾아가 비판의 글을 무더기로 쏟아냈다.

나는 다음 날 팀장 할머니와 동료 할머니들을 만나 당시 견주와 피해 할머니 사이에 있었던 일에 대해 질의응답했고 그 과정을 영상으로 모두 담아낸 후 후속보도했다. 그래도 시는 ‘상황 모면하기’ 식으로 시간을 끌면서 애초의 입장을 견지했다.

한편 견주와 남편으로부터 ‘ 기사를 내려달라’는 항의전화를 수십여통 받았다. 견주는 자신이 여성 견주로서 지금껏 힘든 경험이 많았다고 호소했다. 견주는 자신의 과도한 민원 행태를 지적하는 나의 질문에 동문서답했다. 견주는 할머니에게 사과하고 싶은 마음은 없었고 오로지 자신의 심경만 강조했다. 그러면서

견주는 “나는 지금 폐경인데 당신의 기사를 본 뒤 하혈을 하고 있다. 어떻게 책임질 거냐”고 말했다.

견주의 남편은 내게 폭언을 쏟아부으며 ‘고발하겠다’는 말을 반복했다. 자신이 통보한 시간까지 기사를 삭제하지 않을 경우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엄포했다. 나는 그의 글이 사실무근이며, 할머니는 결코 견주에게 욕설과 폭언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당신이 나를 고발할 경우 피해 할머니 대신 당신을 고발하겠다고 말했다. 하루 뒤 그는 자신이 SNS에 올린 글을 삭제했다면서 내 기사도 삭제해달라고 요구해왔다. 나는 ‘내 기사는 당신의 글처럼 완벽히 허위와 명예훼손 내용을 담고 있지 않고 약자를 대변했고 반려견 문화의 부정적 행태를 보도할 가치가 있기 때문’이라며 그의 억지스러운 요구를 거부했다.

그렇게 일단락되는가 싶었다. 며칠이 지난 토요일 낮, 간만에 딸과 함께 외

식을 하고 있을 때였다. 전화벨이 어지럽게 울렸다. ‘포털 메인에 너를 가짜뉴스 기자라고 저격하는 기사가 게시됐다’는 전언이었다.

〈[단독]강형욱도 분노한 견주 갑질.. 알고보니 “가짜뉴스”〉라는 제하의 기사가 포털에 올라와 있었고 댓글에는 온통 나에 대한 ‘기레기’ 등 저주의 폭언으로 넘쳐났다. 내 기사를 ‘가짜뉴스’라고 지목했으면서 나에게 일말의 해명도 묻지 않았고, 심지어 할머니들을 취재하지도 않았으며, 다만 시청의 입장문과 견주 남편의 일방적 커뮤니티 글만을 추종해 보도한 기사였다.

그 기사를 쓴 A기자는 ‘사회, 정치, 문화, 연예, 국제, 각종 커뮤니티’, 심지어 ‘우주소식’까지 이른바 자극적인 내용 위주로 올리는 기자였다. A기자는 ‘반려견’ 관련 책도 낸 작가라고 했다. 당시 그는 약 8000명에 달하는 포털 구독자가 있었고 지금은 1만5000명을 훌쩍 넘는 상태다. 나는 그에게 이메일을 보냈다. 답변이 없었다. 답을 기다리는 며칠 동안 나는 후속보도를 썼다. 노인일자리 지원사업에 참여한 노인들이 ‘감정노동’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처지, 위탁기관에게 입김을 미치는 시청, 그리고 그 위의 막무가내 갑질 민원의 구조적 문제점을 지적했다.

[단독] 강형욱도 분노한 견주 갑질.. 알고보니 "가짜뉴스"

입력 2021. 06. 05. 12:36

15 43

80대 노인이 견주에 사과? '사실무근'
자극적인 제목과 잘못된 내용으로 보도
마녀사냥으로 번지자.. 시·주변 나서



견주와 시청의 일방적 주장만 담아 뉴스1 기사를 가짜뉴스라고 지적했으나, 오히려 가짜뉴스에 해당하는 기사의 원제목

‘견주 남편의 허위 민원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현장에 나와 보지도 않은 민원 담당자의 일처리가 이번 일의 발단이었다. 나는 시청이 나와 함께 견주 남편의 민원 진위에 대해 같이 조사해 주기를 내심 바랐다.

그러나 우주 소식까지 아우르는 A기자의 ‘본인 취재내용은 거의 없이 강형욱, 견주 남편, 관공서의 입장만 따옴표로 엮은’ 어뷰징 기사가 나간 뒤 상황은 뒤를 뒀다. 시청 공직자 익명게시판에는 ‘가짜뉴스’라고 나를 폄하한 A기자의 기사가 옮겨져 게재됐다. 이어서 나의 신상, 리포트레이시에 올라온 나를 비난하는 댓글들, 나의 얼굴사진 등이 올라왔으며 익명의

공직자들은 나의 얼굴을 비하하는 욕설, 나를 총으로 쏘죽이겠다는 폭언, 원색적인 욕설 등을 쏟아부어냈다. 거기에는 익명의 동조 댓글과 추천이 무수히 따라붙었다. 그들은 대한민국의 공무원들이었다.

나는 평소 해당 시청 다수 직원들과 가깝게 지냈으므로 그러한 상황은 실시간으로 전달됐다. 나는 상황을 지켜봤고, 내가 침묵한다고 판단한 시청 공무원노조는 용기백배해 시청 내외부에 나와 내 소속사를 규탄하는 현수막 4장을 게시하고, 규탄하는 내용의 성명서를 관변 언론사들에게 배포하면서 기세를 높였다. 민원담당 부서, 관권에 침범한 강성 공무원노조, 관변언론을 수년간 홍보예산으로 길들여온 홍보부서, 익명 게시판의 공직자들…역할을 분담한 이들은 한꺼번에 한 시민이자 언론인인 나를 융단 폭격했다. 그렇게 하면 한 개인의 인격을 훼손하고, 직업적 신뢰도를 추락시키고, 지역사회에서 매장시킬 수 있다고 믿는 듯했다. 그러기 위해 선동하고 단결해 모질게 나를 몰아붙였다. 그들은 대한민국의 공무원들이었다.

시 공직사회의 조직적 광기로 인해 평소 친분이 있던 공무원들은 나와서 만남과 연락을 꺼리기 시작했고 나 역시 먼저 연락해오지 않는 이상 연락하지 않았다. 그들에게 피해를 주기 싫었던 까닭이다. 실제로 나와 친한 공무원 리스트가 암암리에

돌았고 ‘그 기자와 친하냐’는 질문을 더러 받는 나의 지인들도 있었다고 한다.

이러한 행각을 주도한 공무원노조 위원장은 곧이어 관변언론사들에 보도자료를 내고 ‘시의 간부들과 협의했다. 왜곡 보도에 대응 잘한 노조원들에게 인사적혜택을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따금 시청에 대한 비판기사를 쓰던 눈엣가시 같던 기사를 탄압한 공로로 반사이익을 꾀하겠다는 노골적 내용의 보도자료였다.

그 무렵 나는 차분히 반격에 나섰다.

나는 A기자의 소속사 선배인 B기자에게 ‘A기자를 고소하겠다’고 말했으며, B기자의 요청으로 내가 작성한 ‘고소장’ 초안을 보내주기도 했다. B기자에 따르면 사내 인터넷 이슈 담당인 A기자는 현장 취재를 해본 경험은 거의 없다고 했다.

그날 오후 당장 (물론 뒤늦었지만) A기자로부터 연락이 왔다. A기자는 자신이 이번 일(일방적으로 견주 측 편만 들어서)로 인해 댓글로 공격받았고, 그 정신적 충격으로 병원에 입원한 상태라고 주장했다. 어쩌면 자신은 암(癌)일지도 모른다고 주장하면서 흐느껴 울었다.

‘어쩌서 할머니와 나한테 확인도 하지 않고 기사를 그렇게 견주 남편 말만

믿고 일방적으로 썼느냐'고 질문하자, A기자는 '시청의 입장문' 이니까 그대로 믿고 썼을 뿐이라면서, 전주한테 따지지 왜 본인한테 따지냐고 내게 항변했다.

A기자는 자신이 쓴 첫 기사 '가짜뉴스' 라는 제목을 삭제하고 '논란' 이라는 단어로 대체했다. A기자는 그것으로 할 일을 다했다고 생각했지만 나는 그가 다시 이 상황을 정리해서 내 입장까지 담은 기사를 보도해주면 고소하지 않겠노라고 했고, 그는 퇴원하면 그러겠노라고 약속했다. 그러나 1년이 지난 지금까지 A기자는 보도하지 않았다. 나 역시 아직 고소하지 않았지만, 공소시효는 길다(A기자는 참고 바람).

A기자가 '가짜뉴스' 라는 제목을 삭제했음에도 시 공무원들은 폭주를 멈추지 않았다.

한 해 1조 넘는 예산을 주무르고 2000여 명 이상의 조직원들이 생활하는 '시' 라는 관료 조직은 무서운 토호 권력이었다.

그 동안 나의 소속사는 시로부터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됐고, 결렬돼 민사소송으로 비화됐다. 시는 언중위에 '시는 위탁기관에 대리사과를 권유한 적이 없다', '비 오는 날 전주와 언쟁을 벌인 할머니는 이후 전주와 만나 사과한 적이 없다' 는 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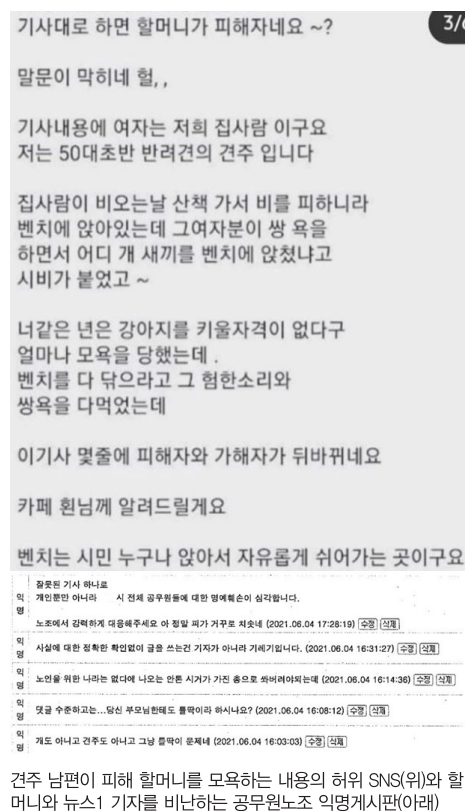
용으로 제소했고 소송까지 끌고 간 상태다. 언론중재위원들은 내내 의아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한 중재위원은 "어째서 양측이 다투죠? 전주 측과 다뤄야 하는 것 아닌가요?"라고 시 측에 따져 묻기도 했다.

나는 변호사를 선임해 시청 내부 조력자의 도움으로 익명 게시판의 한달치 내용을 모두 출력 제공받아 분석한 뒤 가장 정도가 심한 악플러 몇몇을 추려 고소했다(나머지는 선례의 결과를 보고 추가 고소할 계획이다).

경찰은 한차례 시를 압수수색했고 4명의 악플러 공무원들이 특정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기도 했다.

그러는 동안 시 홍보담당부서는 나의 소속사와 맺었던 예산 관련 계약을 파기하고 '그 예산을 이 기자의 후배 기자들이 소속된 언론사에 분배해줄 것', '이 기자는 실적이 줄었으니 회사에서 난처할 것' 이라는 등의 소문을 흘리면서 다양한 심리적 압박을 시도했으나, 나의 소속사는 그 달(6월)에 내게 '모범사원상' 을 수여해줬다.

악플러 공무원들 때문에 우회적으로 내게 화해의 제스처를 취하려 찾아오는 해당 시청 지인들이 더러 있었다. 악플러 공무원 중 1인이 이번 일로 인해 승진에서 누락될까봐 나에게 읍소한 것이었다.



진심이 아니었던 것이다.

이런 상황이 빚어지자 이 사태를 주도했던 공무원노조위원장은 연임을 포기하고 조용히 물러났다. 신입 공무원노조위원장은 나의 지인을 통해 수차례 만남을 요청해왔고 동네에서 감자탕에 소주 한잔하기도 했다. '고소를 취하해달라' 는 말을 하고 싶었던 것 같은데, 만남 뒤 그는 '앞으로 시청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조언을 부탁한다' 는 메시지를 보내왔다.

그들은 각자의 역할을 나누어서 나를 공격하거나 회유에 나선 반면 나는 오로지 홀로 그들을 감당했다. 나는 누구에게도 도움을 청하지 않고 오로지 혼자서 상대해 '내가 과연 당신들의 악다구니처럼 기레기인가' 여부를 밝혀낼 작정이다. 다수의 광기 어린 횡포가 결코 한 사람의 이성 과 상식, 팩트를 함부로 짓밟을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다. 이 일은 진행형이다.

사실 해당 시청과 나의 사이는 12년째 끈끈하여서, 나는 이른바 '관변언론인' 이기도 했다. 하지만 이번처럼 엉뚱한 일로 한번 틀어졌더니 견잡을 수 없는 파국으로 치달았다.

지난 일 년 내가 아꼈던 출입처(해당 시청) 조직으로부터 표면적으로는 난도질 당했지만 남모르게 응원도 많이 받았다. '관변언론 12년은 비판기사 1꼭지만 못하다' 는 이 생활의 공식을 재삼 깨우쳤다. 기자생활도 어언 13년차를 넘어간다. 가장 욕을 많이 먹었고 억울한 지난해였지만 삶을 배운 시기였다.

그 공원을 지나가다가 멀리서 우연히 그 개들을 봤다. 쓰다듬어주고 싶었다.

피해 할머니는 여전히 건강하신지, 원리원칙을 중시하시는지 문득 궁금해질 때가 있다. 🐶